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찬반하호텔 PSPD, 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의정-98-0722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간사 723-5302)  
제 목 김기영 서울시의회 의장 자진 사퇴 요구의 건  
날 짜 1998. 7. 22. (총 1 쪽)

## 김기영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진 사퇴하라!

1. 지난 7월 9일 개원한 제 5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기영시의원(국민회의)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2. 보도에 따르면(한겨레신문 97년 11월 28일·98년 7월 7일자, 뉴스플러스 7월 15일자), 김의장은 서울 지하철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으로 넘겨 받아 8억 7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상태이다. 이렇듯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인사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3. 더구나 일부에서는 91년 발행 시의원수첩(명지대 정보산업대학원 졸), 95년 발행 시의원수첩(명지대 졸), 98년 선거벽보(피시픽웨스턴대 출신) 등의 학력기재 사항이 서로 다르다며 학력사칭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의혹에는 의당 명쾌한 조사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김기영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